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신다 GOD PROVIDES FOR NEEDS 'IN ITS SEASON'

By Chris Simpson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언약이 나와 있다(레위기 26:3-4). 이것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고. 또 요청하기만 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결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주시는 축복이다. 이 진리는 오늘날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n the Scriptures we read that God promised His people if they walked in His ways, He would give them "rain in its season" – and with it, the fruitfulness of the land (Leviticus 26:3-4). Not instant reward. Not ondemand outcomes. But blessing, in its appointed time, according to what was *fitting*, according to His divine wisdom. This truth still governs the marketplace today.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의 바람에 따라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지연되지도, 앞서 나가지도, 엇나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특정 기한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속도를 중시한다. 우리는 빠른 성취와 결과물을 인정하고 보상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래가 아니라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정밀하다. 그리고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임의로 일하시지 않으며, 항상 합당하게 일하신다.

God does not operate according to our calendars or expectations. His actions are never delayed, never rushed, never misaligned. He moves in absolute harmony with His will, according to what is *fitting* in the scope of eternity. And that is deeply uncomfortable for us. We are trained to measure value by deadlines and deliverables. We prize speed. We reward early achievement. But God is not bound by our urgency. His promises are not transactions; they are covenantal promises. His timing is not mechanical; it is precise. And His movements are not arbitrary; they are appropriate.

이것은 모든 리더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야망뿐만 아니라 기대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리더십과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좌절은 실패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의 일정에 맞는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다림이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이라면 어떨까?

This is the test of faith for every leader: Are we willing to yield not only our ambitions but also our *expectations*? Much of our frustration in leadership and life does not stem from failure; it stems from

mistimed desire. We demand results on our schedule and call it "vision." **But what if the waiting is not punishment? What if it is preparation?**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다(갈라디아서 5:22). 인내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형성이라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보이지 않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할 때 같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다. 이사야 40:31 에 나온 약속처럼 말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That is why patience is a fruit of the Holy Spirit (Galatians 5:22). It is not a passive disposition. It is Holy Spirit-empowered endurance. God gives patience because He knows what we cannot see – how formation must precede fruit. How roots must deepen before harvest arrives. Waiting is not weakness. It is the strength to trust when everything in you wants to act. As Isaiah 40:31 promises: "They who wait for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말레이시아 기독교 농업 기술자인 다니엘 탄은 시골농부들을 돕기 위해 저비용 관개수로 도구를 개발하는데 수년을 보냈다. 그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라고 믿었고, 농부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복음의 문을 열어줄 혁신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5 년 동안 아무 일도일어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지연,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자금, 오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6 년째 어느 한 비정부 기구가 다니엘의 시제품을 발견했고, 불과 몇 달 만에 그도구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퍼져 나가, 청지기 직분과 희망에 대한 성경적 교육 및 훈련과함께 보급되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지연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품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자체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Daniel Tan, a Christian agricultural engineer in Malaysia, spent years developing a low-cost irrigation tool to serve rural farmers. He believed it was from the Lord, an innovation to restore dignity and open doors for Gospel witness. But for five years there was nothing. Government delays. Lost funding. Silence in response to his prayers. Then, in year six,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discovered Daniel's prototype. Within months, the tool was in use across Southeast Asia, paired with biblical training on stewardship and the concept of hope. He later realized: *The delay was not rejection, it was formation.* God was not just preparing the product. He was preparing the man.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 언제나 정밀하게 그리고 목적을 두고. "때가 차매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4) 예수님은 빨리도, 늦게도 오지 않으셨다. 복음이전파될 길과 언어와 심령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 구원을받을 준비가 되었을 바로 그 정확한 때에 오긴 것이다. 단 1 초도 이르거나 늦지 않게, 하나님은항상 합당한 때에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This is how God works. Always with precision. Always with purpose.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Galatians 4:4). Jesus did not appear early or late. He came at the exact moment when roads, language, and hearts were ready for redemption through the life-transforming message. Not a second too soon. Not a second too late. God moves when it is *fitting*. His timing is flawless.

그러므로 이제 비즈니스 시장의 모든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져본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당신의 기도가 "주님, 지금 저에게 복을 주세요."에서 "주님, 주님의 복의 복을 받기에 합당해질 때까지 제 삶과 일과 가정을 빚어주세요."로 바뀔 수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시간표까지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는 내릴 것이다. 땅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 계절에 맞춰 그렇게 될 것이다. So, here is the question that confronts every marketplace disciple: Can your faith accommodate God's timing? Can your prayers shift from "Lord, bless me now" to "Lord, shape my life, my work, and my family until the blessing You've prepared is truly fitting for me"? Are you willing to surrender not just

묵상과 토론

your outcomes, but your calendar? The rain will come. The land will yield. But only in its season.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당신의 삶이나 리더십에서 지연이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었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Can you think of a time in your life or leadership when a delay turned out to be exactly what was needed – and even more fruitful than what you had originally hoped for?

2. 갈라디아서 5:22 는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왜 인내가 영적 성숙에 필수라고 생각하나요? 특히 일터에서 말입니다.

Galatians 5:22 lists patience as a fruit of the Spirit. Why do you think patience is essential for spiritual maturity – especially in the marketplace?

3. 다니엘 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빚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위해 당신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Daniel Tan's story serves to remind us of how God sometimes forms the person before releasing the mission. In what ways might God be shaping you right now for something He has not yet revealed?

4. 이사야 40:31 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하고 있다. 원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시간표까지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Isaiah 40:31 says, "They who wait for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What would it look like for you to surrender not just your outcomes, but your calendar?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레위기 26:3-4; 시편 27:14; 전도서 3:1; 이사야 40:31; 갈라디아서 4:4, 5:22 Leviticus 26:3-4; Psalm 27:14; Ecclesiastes 3:1; Isaiah 40:31; Galatians 4:4, 5:22

- (레위기 26:3-4) 3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 (시편 27:14) 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 (전도서 3:1)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이사야 40:31)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 (**갈라디아서 4:4)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 (갈라디아서 5:22)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이번 주는 특히 하나님의 때를 기꺼이 또 능히 기다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당신의 인내를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기도 (혹은 몇 가지 기도)에 대해 응답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This week might be a good time for you to consider how you are in terms of patienc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eing willing and able to wait upon God's timing. Are you currently waiting to have a specific prayer – or prayers – answered? How do you think He might be using this time to prepare you and shape you into the person He wants you to be?

좋은 친구, 멘토, 소그룹 또는 신뢰할 만한 조언자에게 당신의 간절한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의 지혜와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Share your need with a good friend, mentor, small group or some trusted advisors, asking for their wisdom and counsel – and for their prayers that you can remain faithful as you wait for God to answer your prayers "in its season."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